

지역 소식통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고창군의회는 4~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9대 전반기 고창군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9대 전반기 고창군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는 임정호 의원이, 부의장에는 이경신 의원이 선출되었고, 운영위원장은 조규철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은 차남준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만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제9대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임정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의회가 되는 만큼 군민의 뜻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료 의원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정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사업비 900만원을 확보했다.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주적인 재원 확충과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북도가 주관하는 평가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 전반에 걸쳐 체납 지방세 징수율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실적 등 8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시는 평가 기간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했다.

특히,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와 압류재산 공매, 금융채산 추적 압류, 지역 외 고질체납자 징수 등 일관되고 확실 있는 세무 행정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년 정책 추진 '온 힘'

정읍시, 청년 중심·청년 체감... 일자리 창출·지역 정착 등 문제 해결 역량 집중

민선 8기 정읍시가 맞춤형 청년 일자리 발굴과 청년 자립 지원 등 청년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구축에 나선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1일 공식 취임 하면서 본격적인 시정 운영에 돌입했다. 이 시장은 취임과 함께 향후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중심에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자리를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결코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정읍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가 육성 지원, 4차 산업에 대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청년과 기업 간 맞춤형



취업 중개와 권의 지역 취업 알선을 통한 일자리 체계화 등 구직자와 업체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취업 연결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취업 중개센터 인원을 확충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더 나은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와 지역대학이 한 팀이 돼 취업 연계형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확산고와 제일고, 칠보고 등 실업

고를 대상으로 제빵·제과 전기, 용접 등 명장 육성사업을 추진해 지역 기업이 원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시는 청년 복지도 강화한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18~30세 이하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시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1인당 4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학수 시장은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저출산에 대비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전체청원조회에서 '현장'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항상 파악하고, 현장과 항상 공감하는 공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업무 공감하는 공무원 되길"

심덕섭 고창군수, 취임 첫 전체 청원 조회

심덕섭 고창군수가 전체청원조회에서 '현장'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항상 파악하고, 현장과 항상 공감하는 공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5일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날 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첫 전체청원조회(비전다짐의날)를 진행했다.

심 군수는 "지난 2일 지역 영농현장 6곳을 돌아 봤는데 현장에 가서 보는 것과 머릿속에서 또는 영상에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며 "현장과 공감을 하고,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심 군수는 코로나19 국제질서 변동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발굴을 주문했다.

심 군수는 "전군민 재난지원금을 1호 결제했는데, 이번에 주어지는 82억 원이라는 돈이 지역에 풀려 순환되면 최소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농업현장의 가장 큰 숙제인 '농가일손 부족'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심 군수는 "일손부족은 물론, 이로 인한 근로자 임금 상승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행정은 일손공급과 함께 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며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심덕섭 군수는 지난달 18일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제외국인고용센터 및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주와 MOU를 체결하고, 올해 50명, 내년에 300명을 추가로 고창에 계절근로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비전다짐의날에는 민선8기 고창군 인수위원회 안종선 부위원장의 군정비전과 목표에 대한 의의와 방향성에 대한 교육도 이어졌다. 또 고창군공무원노조(위원장 안남기)가 심덕섭 군수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힘껏 뛰어달라'며 열정운동을 전달하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나섰다

심덕섭 고창군수, 군정 살림 챙기기 나서

심덕섭 고창군수가 취임과 동시에 군정 살림부터 챙기기 시작했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4일)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회'에 참석해 관계자를 면담하고 사업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10조원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고창군은 5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고창군 기금 투자사업은 총 6개 사업에 616억원 규모다.

제출된 사업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화과외의 정규학과 개설과 한옥클러스터 조성(117억원)',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지원사업

(100억원)', '신혼부부 및 청년창업농 보육지리 조성사업(200억원)',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85억원)', '공공산후조리원신축사업(63억원)', '임산부 클락시 운영·지원사업(51억원)'으로, 청년과 청소년, 여성을 위한 정책사업 중심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과 청소년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고,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구성돼 있다"며 "군민의 목소리와 함께 각종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 '민생·시민소통·공약이행' 강조

이학수 시장은 5일 민선 8기 첫 영산 간부회의를 주재, 민생 챙기기와 시민소통을 강조하고,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새로운 정읍을 위한 민선 8기 정책과 비전, 시정운영 방향 등을 공유하고,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번 시정 구호를 '시민 중심, 으뜸 정읍'으로 정하고 △풍요로운 민생경제 △농·생명·첨단도시 △꿈을 여는 교육문화 △인간·정정 행복

나눔 △시민참여 열린시정을 민선 8기 시정 5대 지표로 내세웠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중단없는 정읍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정읍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5대 지표를 구상했다고 설명하고 많은 협조와 관심을 청했다.

또 8개 분야 80개 공약사항에 대해 전 부서에서 법적 근거와 실현 가능성, 예산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적·재정적 활동을 신속히 착수해 공약이행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5일 제9대 정읍시의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시민의 행복 실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상생 동반자로서 우호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정읍천과 내장산 문화광장을 비롯한 시민 휴식 공간과 체육시설을 점검하고, 캠핑장 주변과 전사 히어로즈 등의 시설물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스타트업 개발 연료전지 파워팩 공개

부안군에서 창업한 수소·연료전지 전문 스타트업 (주)테라티스(대표 김태영)가 개발한 제1호 수소연료전지를 지난 7월 1일 민선8기 권익현 부안군수 취임식에 맞춰 대중에 공개했다.

공개된 연료전지 파워팩은 정격 출력 2.5kW급(제품명:HYCUS X3)과 정격 출력 4.5kW급(제품명:HYCUS X5)의 공랭식 연료전지 파워 모듈로서 폐쇄된 공기극 구조 적용으로 스택 성능과 내구성 확보, 사선형 체널 구조로 종래 방향 물배출 특성 강화 등이 특징으로 골프장 카트, 소형 노면 청소차 등의 중소형 모빌리티와 수소발전 등

정격 출력 4.5kW 연료전지 파워팩(X5)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내년 부안군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생산 공장이 구후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 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에 공개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은 미래100년 부안, 대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